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음 6월 4일) 제 18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탄소클러스터 조성 '가속도'

2단계 조성사업, 정부 추경예산에 69억원 반영 송 지사 "미래먹거리 전북발 산업 한단계 도약"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2단계)이 정부 추경예산에 69억원이 반영돼 1단계에 곧바로 이어져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5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 정부 주관 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도내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지원활동과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산업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성과를 활용하 2단계 사업을 곧바로 이어져 추진할 수 있게 돼 전북 탄소산업의 성숙과 함께 그동안 기술개발을 준비해오던 탄소기업의 시장진출 확대 및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경북 등 양 지자체가 협력,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었던 사

업이다. 사업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총 714억원 투자된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정부 예타 통과를 했지만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가 끝난후 사업이 확정되면서 2017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그동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였던 수요기업의 적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으로써 그동안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이어서 2단계 사업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내 수송기기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내 탄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 전북의 탄소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산업부 중심으로 전북과 경북 협력하에 총 11개 융 복합 탄소부품 및 전도성 탄소소재 기술개발 사업과 11개 핵심기술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11개 R&D사업은 공모를 통해 저가형 탄소섬유 개발 및 탄소소재 부품 개발, 탄소소재의 인증 및 표준화 등 탄소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높은 가격과 어려운 공정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핵심적으로 추진 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8월중 사업공시, 사업공고 등 신속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R&D, 인프라 구축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사업공모에 대비해 그동안 사업을 기획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도내 기업,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해 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추경예산 심의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도내 여야 3당 정치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지난해 예타 지연 통과에 따른 국가예산 미확보로 지난 7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올해 정부 추경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앞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에 담긴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업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후원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함종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정대영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전북도내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세계잼버리 후원 협약 체결식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2면>

도 올 1회 추경, 본예산보다 3091억 증액

5조4676억원 확정 금융타운 종합개발 수립 3억 ↑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각각 25억·30억·26억 증액

전북도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3,091억원이 증가한 5조4,676억원으로 확정했다. 추경은 도 공약사업, 3대핵심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올해 정부추경 100대 국정과제 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 역대 추경 최대규모로 편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85억원, 교육 203억원, 문화관광 330억원, 환경 88억원, 사회복지 779억원, 농림해양수산 575억원, 산업·중소기업 278억원, 국토및지역개발 95억원 등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공약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3억원을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억7,000만원을 반영,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등 총 7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도정 3대 핵심과제인 삼락농정은 농민, 농업, 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미래농업을 이룰 스마트 농

생명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바이오활성소재육성지원사업 등 총 25억원 증액 편성했다. 토탈관광은 전북투어패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축제지원 및 2018년 전라도 천년의 봄 조성 등을 총 30억원을 증액했다. 탄소산업은 탄소소재의 상용화 촉진과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차전지 소재 융합실용화 촉진사업, 복합 섬유소재산업 육성 등에 총 26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등 총 63건 1,436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지역특화 유망전시회 발굴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전북도 마이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반영, 남원, 장수 등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가이온화 유적지와 가야사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편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나후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해 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지원을 위해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한편, 전라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금회 1회 추경예산의 집행에 필요한 인허가, 보상, 설계 등 행정절차 조속이행과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검찰, 스스로 정치중립성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민이 검찰의 대변자를 바라고 있는데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줄 대기로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이 생길 것"이라며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전북도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된 것은 세계유산센터에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문화재청→외교부→세계유산센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다. 2018년 1월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2018년 8~9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를 거쳐 2019년 7월경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국의 서원은 201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신청



2019년 7월 최종 결정

서를 제출했으나, 심사결과가 좋지 않게 예측되면서 자진철회 한 바 있다. 이후 세계유산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의 자문실사를 받아 신청 내용을 계속 보완해 왔다. 전북은 지난 2000년 고창 고인돌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소리(2003), 매사냥(2010), 농악(2014), 익산백제역사유적지구(2015)가 연속적으로 등재되어 현재 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갯벌이 201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전북은 세계유산 7개를 보유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로 세계유산을 최다 보유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된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이번 세계유산 최종 신청대상 선정에 계기로 한국의 서원(정읍 무성서원)의 진정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동쪽에 위치한 홍살문을 헹가루 남쪽으로 이축하는 등 이코모스 세부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